

충남연구원 세미나 개최(CNI 세미나 2018-029)

충남의 문화정책 진흥을 위한 세미나

2018. 05. 02

일시 ■ 2017년 5월 2일(수), 14:00~ 17:00

장소 ■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프로그램

□ 주제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충남의 전략 및 과제 발굴

행 사 순 서	행 사 내 용	시 간
개 회	강현수 원장 (충남연구원)	14:00~14:10
발 제	각 20분	
주제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발 표 : 김재경 본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10~14:30
주제 2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 표 : 손동혁 팀장(인천문화재단)	14:30~14:50
주제 3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과제 발 표 : 정지은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14:50~15:10
휴 식		15:10~15:20
자 유 토 론	좌 장 : 김보성 실장(대전문화재단) 토 론 : 이존관 과장(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이선미 장학사(충남도교육청) 변상섭 부장(충남문화재단) 문옥배 사무처장(당진문화재단) 이종원 차장(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김춘경 교수(동덕여자대학교)	15:20~17:00
폐 회		17:00~

목차

■ 발제

제1주제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1

김재경 본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2주제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전략과 과제

6

손동혁 팀장 (인천문화재단)

제3주제 :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과제

21

정지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 자유토론

33

좌 장 : 김보성 실장(대전문화재단)

토 론 : 이존관 과장(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이선미 장학사(충남도교육청)

변상섭 부장(충남문화재단)

문옥배 사무처장(당진문화재단)

이종원 차장(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김춘경 교수(동덕여자대학교)

0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김 재 경 본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추진전략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문화예술교육 자원 다각화

·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Copyrigh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signed by Infocreative.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Copyrigh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signed by Infocreative.

□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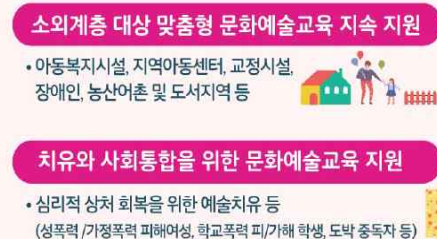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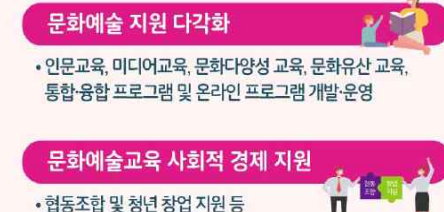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Copyrigh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signed by Infocreative.

□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lab 구축 지원

문화예술교육 담론 확산 및 통계조사 체계화

중장기 정책 대응 및 전략 구축

문화예술교육 정책협의체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문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체계화 (교육인력 및 기획행정인력)

문화예술교육 연수의 체계화 및 전문화

문화예술교육 인력 간 협력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 국제교류 활성화 및 가치 확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및 협력 강화

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홍보 활성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운영

Copyrigh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signed by Infocreation

02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전략과 과제

손 동 혁 팀장

인천문화재단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전략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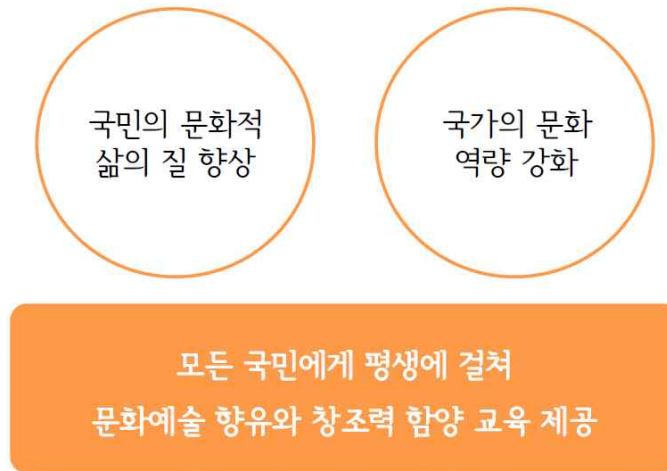
손동혁(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 ‘2017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 2차 토론회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2017.11.07)의 발표문을 보완하였습니다.

목차

1.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2. 지역과 문화예술교육
3.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전략과 과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3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원칙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함
-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원칙의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필요성을 국가적 차원으로 제한하여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칙은 개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차원에 머물러 있음
- ‘2010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는 문화예술교육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 사회적·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책무와 사회적 통합, 문화다양성 및 상호문화 간 대화 촉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목표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음

2010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

1. 값어 있는 교육의 부활을 위한 근본적·지속적 구성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 1.a. 청소년의 조화로운 인지적·감정적·미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술교육 요소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1.b.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및 세대간 교육을 도모한다.
 - 1.c. 예술교육을 통한 정규·비정규 교육시스템과 구조의 부활을 모색한다.
 - 1.d. 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예술교육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교육 실천가들의 역할을 재고한다.
2. 예술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은 양질의 개념과 포괄적인 전달을 보장한다.
 - 2.a. 학교 내외 학교 밖의 교육에서 예술가와 교육자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 2.b. 교육자,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술교육 양성여 여망지도록 보장한다.
 - 2.c.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예술교육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 2.d. 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이론과 연구, 실천 간의 연계 및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3. 예술교육의 원칙과 실천을 통하여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에 기여한다.
 - 3.a.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교육을 도모한다.
 - 3.b. 사회적·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지하고 개발한다.
 - 3.c. 사회적 책무와 사회적 통합, 문화다양성 및 상호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연마한다.
 - 3.d.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이루려는 주요한 지구적 도전과제에 응답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을 육성한다.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문화예술교육 주요 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2006~)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2008~)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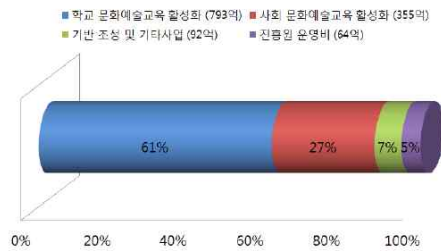
사회문화예술교육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0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0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0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2012~)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2016~)

- 학교 문화예술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 사회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문화예술교육 세부내역 예산 비중(2016년 기준)



문화예술교육 총 수혜자 수(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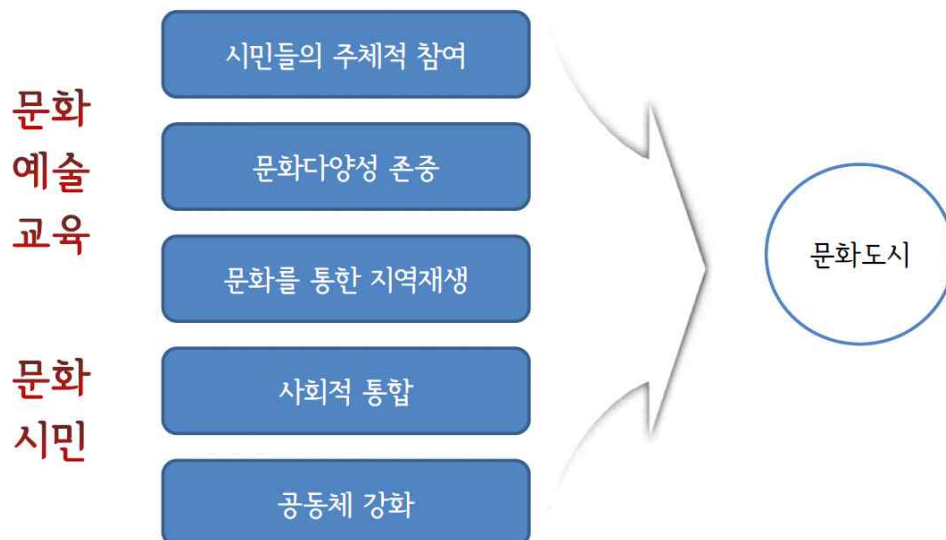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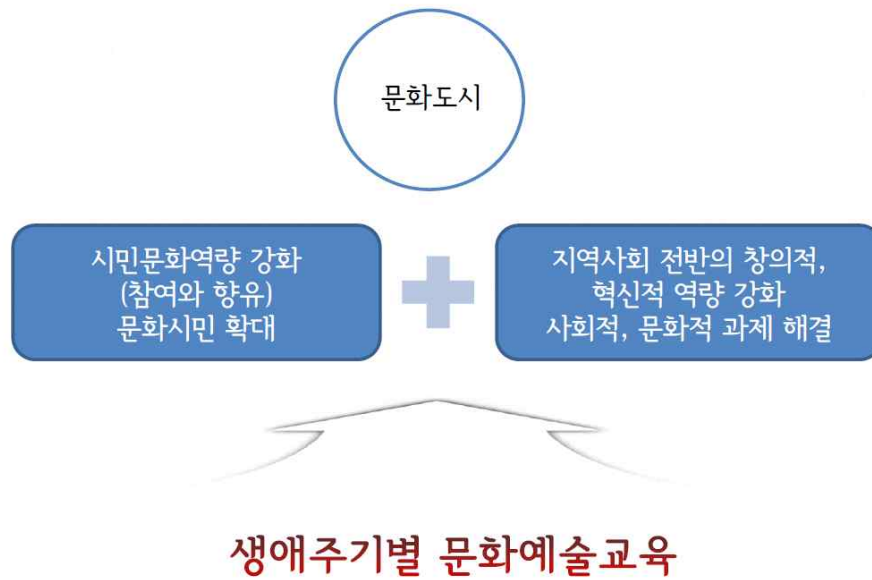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2017

7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문제점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이분화 되어 있고, 예산과 수혜자가 학교에 집중되어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2010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은 현재도 요원함)
- 결론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는 학교 안과 바깥으로 분리되어 있고, 시민 대다수는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8



1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체계 구축

2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3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 조성 및 주요사업 재구성

13

1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체계 구축

➤ 사업의 지역 이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재조정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사업평가
- 관련 법제도 정비
- 부처 간 정책 협력체계 구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센터 지원 업무 중심
-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 프로그램 개발, 국제협력
- 네트워크 구축 및 조정
- 통계 시스템 구축

14

1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체계 구축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및 자율성 확대

-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일원화 및 사업전반을 기획, 관리, 실행
-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의 허브
-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 발굴, 관리, 강화
- 지역센터 종사자의 안정성 및 전문역량 강화
- 자율성 확보를 위한 포괄예산제 실행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초단위 거점 구축

-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등을 활용해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협력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문화학교 운영

•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항해섬네트워크, 여행인문학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2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중심 이동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이분화된 프레임 폐기
- 지역사회 관점에서 학교를 통합
- 세대를 기본으로 문화예술교육 설계 및 실행
- 계층별 필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 생활문화 영역과의 긴밀한 연계
- 동네 단위의 자원 발굴 및 연계(예:동네예술대학)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전략과 과제

2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 비 문화예술영역과의 융합교육

- 공동체의 유지와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실행



17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전략과 과제

3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 조성 및 주요사업 재구성

➤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 조성

- 전문적인 기자재, 설비, 재료를 갖춘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 접근성과 규모,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도심 내 폐교 적극 활용

➤ 지역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재구성

- 지역별 조건과 상황에 맞는 사업 개발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공급

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2018년 1월 11일, 최초의 법정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경과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16년~'17년)
 - *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연구('16년), 문화예술교육지원 정책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17년)
-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16.5월~'17.11월)
 - * 관련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6회), 지역별 간담회(16회, 112명), 토론회(4회) 등
- 관계기관 의견수렴('17.12월)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심의('17.12월 말)

문화예술교육 정책발표 추이

- 2004년 11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문화관광부·교육부
- 2007년 6월,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 문화관광부
- 2010년 7월,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향」,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 2014년 2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19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

- (지역 분권화) 현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역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체계로의 전환
- 중앙정부-광역 지자체-광역재단으로의 체계와 함께 기초 단위의 구심점을 통해 연계성·확장성 확보
- (정책 체계화) 국민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성 고려
- 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 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 과정별 정책 영역 간 연계 및 협력
- (수요 특성화) 전 국민 대상 정책으로 생애주기·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
- 생애주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방향 설정
 - 수요특성별 지원, 정책수요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 설계
- (융합과 확장)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범위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외에, 미디어, (다)문화, 인문 등 영역과의 융합·확장 모색
- 예술교육(창의성, 공감력, 표현력), 미디어 교육(시민성, 공동체성), 문화재 교육(정체성), 문화교육(문화다양성, 문화적 포용성), 인문교육(자존감, 성찰력) 등

2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분권화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실현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탈중앙화, 분권화, 지역별 특화
- 중앙-지역(광역-기초)의 협력체계 재구성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의 권한 및 역량 강화
- 기초지자체-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실현

중앙
지역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 및 기반(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 지원

지역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기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추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의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중앙-지역 간 역할 재정립)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능 및 역할 강화 방향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지원 조례 제정,
지역별 협의회 등 육성 기반 체계화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단위까지 추진체계 구축)
(예산운용 자율성 제고) 예산의 통합 지원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지역별 계획 수립)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18년 상반기)
(조례 제정)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유도
(광역 협의회) 시도별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운영 활성화
(기초 협의체) 기초 자치단체별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 광역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기능 구체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광역센터의 위상 재정립
(광역센터 지정 방안 개선) 안정적·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 개선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사업 통합개편) 지역(광역센터)의 자율적 기획과 재량권 확대
(중앙단위 사업의 단계적 지역 이관)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단계적 지역 이관
-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기초센터 지정 방안 마련) 생활권 중심의 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방안 마련

23

인간은 남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한다.
자기가 자기를 온전히 지배할 때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최고로 꽃피울 수 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이 지나치게 통일되어도, 또 지나치게 분할되어서도 안 된다.”

-T.S.엘리엇-

‘지나친 통일’과 ‘지나친 분할’의 동시적인 해체가 절실

고 맵 습 니 다

24

03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과제

정 지 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과제

- I.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환경 변화
- II.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사례 조사
- III.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분석
- IV.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 방안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정지은 책임연구원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환경 변화

- 01. 배경 및 목적
- 02. 과업 범위
- 03. 문화예술교육 추진기관

1 배경 및 목적

세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 강조 •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추진 정책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사회화, 지역화 및 생애주기별 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상생을 위한 지역 특화 및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의 재편이 필요

지역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방안의 구축 필요

2 과업 범위(1차 연구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연구 범위

- 과업 년도 : 2016년
- 공간 범위 : 충청남도 내 4개 시군*
(천안시, 아산시, 청양군, 금산군)
- 연구 대상 :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지역문화재단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 충남 시·군별 문화기반시설의 현황 : 천안 25개소, 공주시 17개소, 아산시 15개소, 금산군 각 13개소, 청양군과 계룡시가 4개소로 조사됨

○ 내용적 범위

- 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헌 고찰과 정책 검토
-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선행 사례 조사 및 워크숍 개최
-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현황 분석 및 과제도출
 - 충남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공급 실태분석
 - 중앙정부의 충남 문화기반시설(2013년) 문화예술교육 분석
 - 충남의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설문조사(2015년) 분석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정책과제 도출

3 문화예술교육 추진기관

기관명	과제명	주요내용
교육부 시도교육청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학교 예술감사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연계 및 관리
	2-1.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도서벽지 소재 각급 학교 연계 및 관리
	3-2. 문화예술교육 연구기능 확충	◦ AK 기반 구축 지원
법무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교정시설,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계 및 관리
국방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육·해·공군 연계 및 관리
여성가족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연계 및 관리
산업통상 자원부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산업단지, 중소기업 연계 및 관리
보건복지부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연계 및 관리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연계 및 관리
통일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북한이탈주민시설 연계 및 관리
경찰청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의경부대 연계 및 관리
지자체	2-1.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별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협조
	2-2.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 지역별 광역센터 자원 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p. 22.

구분	공급주체 유형
공공부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 문화재단,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산하기관, 자립재단, 주민자치센터, 국공립평생교육시설 등
민간부문	예술계 학원,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 민간 문화시설
	평생교육시설, 복지시설, 여성 및 청소년시설 대학, 시민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p. 20.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사례

01. 해외의 문화예술교육 사례(일본)
02. 동아일보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1 일본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 일본 시가현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선정 이유: 자매도시를 맺은 곳, 사회문화적·지리적 여건 비슷
- 기본 목표: 문화를 제고하여 지역이 활기찬 모습
- 문화예술교육 목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대(Art Brut),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 지원(아이치 섬머 세미나)



■ 사례 01 : 미술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 (Art Brut)

- Art Brut : 삶의 예술이란 프랑스어
- 정규 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유행에 간섭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그림이나 조형물
- 작품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 전람회 등을 통한 국내외 일본 Art Brut 작품 보급, 미술관 정비와 기획, 교육 등 진행 : 마을의 옛 민가나 창 등을 개수 하여 전국 10개소 개설 예정→ (문체부) 문화적 도시재생
- 장애가 있는 작가의 삶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과 작품의 연계성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 일본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 사례 02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사례 (아이치 섬머 세미나)

- 아이치 섬머 세미나 : 아이치현에서 20년 이상 지속된 지역주민과 학교가 연계된 시민 참가형 세미나
- 배경: 아이치현에서 사립 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치현 사립 고등학교의 교원들이 수업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면서 만들어짐



- 여름 방학 기간에, 3일간 2000강좌 이상(2013년 기준) 개강되며, '누구나 선생님, 누구나 학생, 어디라도 학교' 라는 컨셉을 가짐
예) 어느 교실에서는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토론하거나, 현재 유행하는 것을 배우는 강좌, 교실 밖에서는 체력 수업,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직원에서 벤처기업 사장)이 그 직업에 대한 소개 강좌 등으로 구성
- 효과 : 사립고등학교의 토요 강좌에 영향(현재 7개현 8개 세미나 실시)
아스크 넷 이라는 NPO법인이 생겨났으며, 이 행사는 아이치현 교육위원회와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 기업 및 단체의 후원을 받음

구분	특징
아이치 섬머 세미나	어느 누구라도 선생님이 될 수 있음
	어느 누구라도 학생이 될 수 있음
	무료로 배울 수 있음(일부 재료가 필요한 강좌도 있음)
	부모·교사·학생·NPO법인이 협동 운영
	압도적인 강좌 수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한 강좌
	교실 내에서만 아니라 필드워크도 실시하는 등 다채로움



1 일본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 사례 03 : 지역도서관을 통한 영상 아카이빙과 영화 상영

“후쿠오카 현립도서관 시네라(Ciné-la)와 미니시어터”

- 일본 내에 몇몇 필름 아카이브가 있지만 도서관 내에 아카이브 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은 후쿠오카 현립 도서관이 유일함
- 교육위원회가 책정한 시 종합도서관 기본계획에 영상미디어센터가 포함되어 도서관 내에 영화 필름 전용의 아카이브가 생김

주요 역할

- 아시아영화, 고전명작, 후쿠오카국제영화제상영작, 일본영화, 애니메이션, 기록영화, 실험영화, 후쿠오카시 관련 영상들을 수집하여 귀중한 영상문화재로 장기간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는 역할
- 도서관 내의 상영 시설인 영상홀(시네라)과 미니시어터에서 상설 상영
- 영상홀인 시네라는 총 246석 규모의 영화관으로 16mm, 35mm, 비디오(DVD, 디지털비디오 등)의 상영이 가능함
- 총 50석 규모의 미니시어터의 경우, 16mm 필름과 비디오(DVD, VHS)의 상영이 가능함
- 상영되는 작품은 아시아영화, 그리고 일반 영화관에서는 상영하지 않는 명작 일본영화 중심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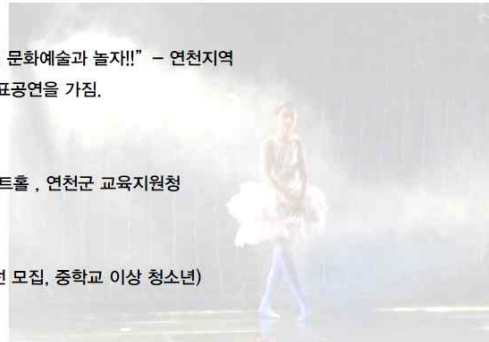
자료 : <http://www.cinela.com/english/cinela.htm>

2 동아일보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 사례 04 :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연천 사례

1. 프로그램 개요

- 행 사 명 :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 연천지역
- 교육시기 : 매주 5회(주중3회, 주말2회) 총 8~12주 교육 후 발표공연을 가짐.
- 교육장르 : 연극- 아름다운 별리(別離)
- 교육과정 : 비영리민간단체 극단 Big Apple
- 주 최 : 동아일보사, 경기도 연천군청,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 연천군 교육지원청
- 후 원 : 한진중공업
- 대 상 : 연천군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1~고3 학생 21명
(복지시설 소속,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 우선 모집, 중학교 이상 청소년)



2. 프로그램 목적

- 소외계층이나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토록 하여 상상력과 창의력 및 사회성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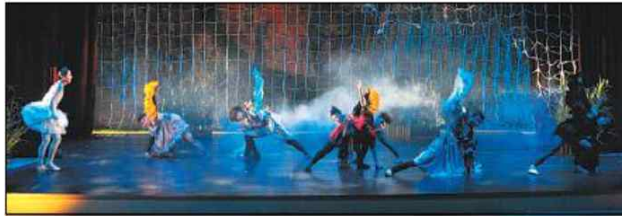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의도

-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프로그램은 단순히 무대 아래에서 보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예술인들이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는, 공연의 전 과정을 함께 체험하는 형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 이에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문화예술체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인성, 창의성, 자신감, 협동심 등을 고양시켜주는 전인교육프로그램

“연극 연습하며 배우의 꿈 생겼어요” 본보 ‘문화예술과 놀자’ 연천서 32번째 공연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의 32번째 행사가 23일 오후 3시 경기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일보가 2007년 한진중공업의 협찬을 받아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 시작했다.

동아일보와 연천군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연천지역 중고교에서 선발된 20여 명의 학생이 연극 ‘아름다운 별리(別離)’를 선보였다. 아름다운 별리는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각색한 작품이다. 학생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약 40회에 걸쳐



23일 오후 경기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행사에서 연천지역 중고교에서 선발된 학생 20여 명이 연극 공연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1일 3시간씩 연기와 대사 등을 익혔다.

이들을 가르친 김춘경 극단 빅애플(Big Apple) 예술감독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술교육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김규선 연천군수와 김현배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명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 등 600여 명이 관람했다.

연천=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분석

01.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관련 사업추진 현황
02.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분석

1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관련 사업추진 현황

문화기반시설



-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충남은 전국 6위를 차지함
- 공공도서관 > 박물관 > 문예회관 > 지방문화원 > 미술관 > 문화의 집 순으로 보유

문화재단



- 광역도 단위의 충남문화재단, 시·군 단위의 천안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연령별, 장르별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학교를 운영

2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분석

분석 및 종합 시사점



문예회관에 대한 시사점



- 단순 관람형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형으로 변화 필요
- 중점 교육 대상이 2013년 노인에서 2015년 성인으로 변화, 향후 교육 대상을 청소년, 소외계층까지 확대 필요
- 예산지원과 참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정책 여건 마련 필요

지방문화원에 대한 시사점



- 중점 교육 대상으로 2013년 성인에서 2015년 어린이, 성인, 기타로 이전보다 다양하게 변화
- 그러나 중점대상과 이용자 간에 차이가 존재 → 주 이용자인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필요
- 3년간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의 숫자가 줄어들어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운영비 지원 필요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사점



- 중점 교육 대상과 이용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주 이용자가 3년간 계속 성인이었기에 성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정 개설 필요
- 도서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 수 자체인력이 3년간 27.8명에서 5.06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어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기획 전문 인력과 교육 강사의 지원 필요

2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분석

지역문화재단 시사점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현황



-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체계는 4.75점으로 전국 기초문화재단의 결과(2.83점)보다 높게 나타남. 그러나 감사 수급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보임
- (1순위)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 가능한 프로그램 기관 소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운영 시 어려움 점



- 예산 재정확보(30%), 재단의 전문 전담인력 부족(20%), 참여자(홍보) 부족(20%)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힘
- 향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로 1순위 사업운영비 지원확대, 2순위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3순위 공무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의 제고로 나타남

향후 시사점



- 향후 거점의 역할을 하는 충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초문화재단간에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의 역할이 분배되어야 함
-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힌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의 보강은 교육과정의 공동 제작 등을 통해 보완 가능
- 참여자의 수요조사를 향후에 실시해서 교육과정 개설 필요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기적 계획 필요

2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분석

구분	대상		인력 (명)	여건	기관 예산		프로그램 형태	운영 시 어려움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활성화 방안
	방문자	교육 대상			예산	지원받은 여부			
문화회관	성인·청소년	성인·청소년	보통	전담 인력, 자체 예산 확보, 지역주민 관심, 감사인력 구인 어려움	보통	지원받은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참여자 인식 부재·예산 재정 확보	교육 감사 지원·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문화의집	성인·청소년	어린이·청소년	부족	전담 인력 및 조직 구축 부족	부족	지원받은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예산 재정 확보·관계자 마인드 부족	기획 운영전문 인력 지원·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의 구축
문화원	노인·성인	어린이·성인·기타	부족	전담 인력 및 조직 구축 부족	부족	받지 않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예산 재정확보·인프라 부족	운영비 지원·교육 감사 지원·공간 확충 지원
도서관	어린이·성인	어린이·청소년	부족	전담 인력, 자체 예산 확보, 지역주민 관심, 감사인력 구인 어려움	부족	받지 않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참여자 인식부재·예산 재정 확보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교육 감사 지원
박물관	성인·청소년	어린이·청소년	보통	전담 인력, 자체 예산 확보, 감사인력 구인 어려움	부족	받지 않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기관의 인력 부족·예산 재정 확보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공간 확충과 운영비의 지원
미술관	성인·노인	어린이·성인	부족	전담 인력, 수행시설, 자체 예산 확보 부족	부족	받지 않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와 그 외 형태	참여자 인식부재·기관의 인력부족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문화재단	-	성인·어린이·노인	부족	감사 인력 구인·수행기관/단체 수급 어려움	보통	모두 지원받은	지원 형태	예산 재정확보·재단의 전문 전담인력 부족·참여자(홍보) 부족	사업운영비 지원 확대·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공무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의 제고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은 2013년 3억 1700만원에서 2015년 13억 21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18,26개로 단순 관람 전시 형태의 교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기반시설은 대체적으로 예산재정 확보의 문제와 참여자의 인식 부재가 운영하기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단은 전문 전담인력의 부족이 운영하기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기에, 향후 예산과 전문 인력의 보완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임





충남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원 방안

01. 충남 문화예술교육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02.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추진방안
03. 논의 주제 및 향후 연구 방향

1 충남 문화예술교육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생애주기와 교육대상별
과정 개발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적 개발
- 노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의 집중 육성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
관 협력체계 구축

-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류
- 시·군별 공공교육시설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학교 설립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 강화
- 지역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



주민주도형 사회문화에
술교육의 활성화

- 지역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사업 강화
- 지역주민과 동아리의 지역축제 참여기회 확대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추진

-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 충남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

2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추진방안

사회적 약자	협력 체계	지역 전문가 활용	지역주민 주도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 100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유니버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집중 육성사업추진 다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발굴과 시책 추진 	충남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의 문화재단과 문화기반 시설 업무협약 체결 및 정기 워크숍 개최 충남문화재단과 천안, 아산, 당진문화재단 통합문화예술교육 연대 사업 추진 문화기반시설 간 연계 문화예술 교육 활용시책 발굴과 운영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협력 문화재단에서의 예술 강사 등 전문 인력 사업의 추진 	지역주민 주도형 사회문화 예술교육 동아리 사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 동아리 구성 지원 지역축제시 문화예술교육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우수 문화예술 동아리 국제 행사 참가 지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4

자유 토론

이 존 관 충청도청 문화정책과 과장

이 선 미 충청도교육청 장학사

변 상 섭 충남문화재단 부장

문 옥 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이 종 원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차장

김 춘 경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추진 방향

이존관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jklee00@korea.kr)

I. 들어가며

1.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道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1)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함
 - (학교문화예술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 지는 문화예술 교육
 -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노인·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의 문화예술교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2)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 도민 문화인식과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활성화
- 충남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 지역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

II. 문화예술교육 현황

1. 제도적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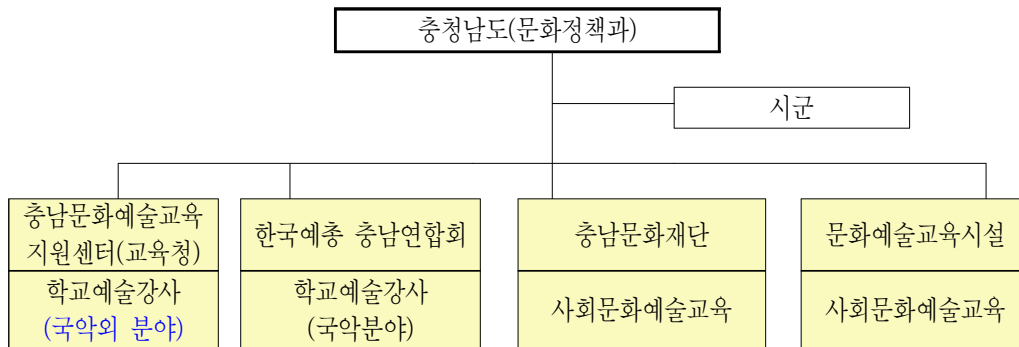
1)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설립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및 시·군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사업 확대 추진
- 출범시기 : 2009년 5월 25일 충남문화예술교육센터 개소((사)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지정 운영))
 - ↳ 2014. (재)충남문화재단으로 이관
- 직원현황 : 센터장 외 8명
- 예산규모 : 2018년, 센터 운영비 300백만원(국 150, 도 150) / 사업비 1,815백만원

2) (재)충남문화재단

- 설립목적 :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전통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며 도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모두가 창조의 기쁨과 가치 있는 삶을 누리도록 지원
- 설립일 : 2013년 12월 28일
- 직원 : 정원 30명 / **현원 23명**
- 예산규모 : 2018년, 운영비1,330백만원 / **사업비 13,441백만원**

3) 문화예술교육 구성 체계



2. 예산 및 시설현황('18. 4월 현재)

1) 문화예술교육 예산

- 계 : 2,353백만원(국 1,294, 도 1,059)
 - 학교예술강사 지원 : 790(국 395, 도 395)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300(국 150, 도 150)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55(국 245, 도 10)
 -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1,008(국 504, 도 504)
- ※ 도 문화예술팀 총예산(지역예술 역량 강화) : 17,663백만원(국 1,294, 지 1,112, 기 1,196, 도 14,061)

2) 문화예술교육 시설

- 계 : 154개(공공도서관 58, 박물관 44, 미술관 8, 문예회관 17, 지방문화원 16, 문화의집 7, 문화재단 4)

지역	총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재단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충남	154	58	39	19	-	44	27	14	3	8	1	7	-	17	16	7	4
전국 평균	151.9	54.7	39.9	13.6	1.1	47.6	21.8	19.8	6.0	11.9	3.0	8.2	0.6	13.6	13.5	6.8	3.7

3) 인구 10만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2017 문예연감) : 전국 12위

지역	계	시각예술	공연예술					
			소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충남	45.4	12.1	33.3	3.8	13.0	10.0	1.9	4.7
전국 평균	66.4	25.6	40.7	2.9	19.2	12.1	2.7	3.8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충남 75.4%, 전국평균 79.3% 대비 3.9% 낮음(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주요 사업 추진내용

1)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예산 : 4,566백만원(국비 4,171, 도비 395)/ 7개분야(3,776) 국악분야(790)
- 대상 : 도내 각급학교(초·중·고·특수대안)
- 내용 : 각급학교의 기본(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돌봄교실 예술분야 강사 등 지원
- 지원분야 : 7개 분야 운영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 국악분야 한국예총충청남도 연합회에서 운영
- 사업량 : 422개교, 580개 교육과정, 총 68,565시수 지원, 강사수(타지역 강사 포함) 256명



* 학교문화예술교육수업(공예)



* 기획사업 '찾아가는 예술수업'(뮤지컬)

2)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예산 : 490백만원(국비 245, 도비 10, 시군비 235)
- 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 및 활동가
- 내용 :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사업량 : 34개 단체 선정 지원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 예산 : 1,008백만원(국비 504, 도비 504)
- 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 및 활동가
- 내용 : 도예·공예 체험, 연극·무용 강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사업량 : 39개 단체 운영(연극, 무용, 오케스트라, 공예,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4)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 예산 : 170백만원(국비 150, 충남문화재단 20)
- 대상 : 문화 및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교육 운영
- 사업량 : 전문인력 12명, 학생단원 70명



*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5) 국악강습 및 체험(도 자체사업)

- 예산 : 600백만원(도비)
- 내용 : 학교(초·중·고) 및 일반인 대상 국악강습 및 체험
- 사업량 : 연 80회 강습 및 체험



* 국악강습

* 한국무용 강습

III. 향후 계획

1. 지역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1)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수립('18.6월)

- 충남연구원 전략연구과제 부여('18.3월, 박철희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중(도, 충남문화예술교육센터, 도교육청, 충남연구원)

2)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협의회 구성·운영('18.5월~, 20명 내외)

- 도, 도교육청, 충남문화예술교육센터, 충남연구원, 문화예술교육사, 교원, 학부모, 문화예술인, 전문가 등

3)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18.하반기)

-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후, 필요한 사항 조례 제정

2.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강화

1)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 지역 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이 수립되면 계획에 의거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중년, 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2) 문화산업, 문화재 교육

- 도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문화유산과를 통해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교육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3) 기타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 강화

- 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강화

3. 문화예술교육시설 확충

1) 충남도서관 활용 활성화

- '18.4.25 개관한 충남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나고 도민들의 이용 활성화 도모

2) 충남예술의전당 건립

- 내포신도시내 문화시설지구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육시설 등을 갖춘 도립 예술의 전당을 2022년말 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매입 등 추진 중

3) 도립예술단 창단

- 도립 예술의 전당 준공시에 현재 4개의 공립예술단을 도립예술단으로 창단·운영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교육에 이바지할 계획

충남학교예술교육 현황

이선미 |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lsm67@cne.go.kr)

I. 서론

충남학교예술교육은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양성과 예술교육 기회 확산을 통한 예술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예술교육 기반 조성,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공연 및 전시문화 활성화라는 3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II. 충남학교예술교육 주요 사업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3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예술교과 교육과정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고 단위학교의 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예술교육 기반 조성

가. 예술교과연구회 운영

예술교과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실수업 개선으로 모든 학생이 즐거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의 교과에서는 학생의 관심 과목을 예술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에서는 4개의 예술교과연구회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나. 악기지원센터 운영

내실 있는 악기지원을 통한 '1학생 1악기연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속기관인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을 악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바이올린, 첼로, 해금 등 현악기를 구입, 대여하고 있으며 악기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다.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문화예술교육지원법('08.12.29) 제정에 의거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체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교과와 연계한 8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를 지원하고 충

남문화재단(7개 분야)과 충남예총(국악)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충남예술교육지원단 운영, 예술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학생수업 중심 수업 개선을 위한 초·중·고 음악지도실천사례 연구대회, 중·고 미술지도실천사례연구대회 운영, 소외지역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 지역 단위 예술교육협의체 구축·운영을 위한 지역연계 예술교육활성화 교육지원청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2.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가. 연극·뮤지컬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예술, 특히 연극(뮤지컬)을 통한 역할극으로 타인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인격체 육성을 통한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67교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문화예술 소외 지역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향상 및 심미적 인성을 계발하기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62교(교육부 지정 32교, 충남교육청 자체 지정 30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관악, 현악, 관현악, 국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상시예술동아리, 수업 종료 후, 휴무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 소재 학교들의 음악교사, 파트별 전문강사, 예술교육 인턴교사, 지역 예술관련 단체 인력들의 재능 기부를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학생 희망을 반영한 예술동아리 운영

학생들이 희망하는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협력적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교당 1개 이상의 예술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 173교, 중 58교, 고 22교 총 254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라. 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 학교 운영

예술체험을 통한 농산어촌 면지역 학생들의 다면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예술소외지역 학교의 취약한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학교 37교, 예술체험연계 시범교육지원청 1지원청,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예술특성화프로그램 운영 1교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술 분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술중점학교 운영, 교육공동체를 위한 음악회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충남교직원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3. 공연 및 전시문화 활성화

가. 충남 학교예술교육 발표회

학생들의 성취감 향상 및 예술을 통한 총체적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성과 공유를 통한 일반화를 위해 충남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된 특기·적성의 조기 계발 및 표현력 신장을 위해 단위학교, 권역별 학교 연계, 지역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 연극, 뮤지컬,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발표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충남 풍물놀이 한마당

우리 가락을 오늘에 바로 되살림으로써 건강한 전통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하고자 2017 제1회 충남 풍물놀이 한마당 ‘학교야! 풍물치자’를 개최하였다. 사물놀이 및 풍물놀이 공연, 교사 및 지역주민 공연, 전통 연희단 공연 등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올해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 충남학생연극페스티벌

청소년들의 잠재된 끼를 발현하고 연극을 즐기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충남지역의 학교 및 지역사회 학교의 연극문화 확대를 위해 충남학생연극제 및 연극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초중등사제동행 미술 축제 및 전시회, 중등 음악경연대회, 중등미술실기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III. 결론

충남학교예술교육은 3가지 중점 운영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과 적성을 살린 예술활동 기회 확대, 소외지역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 제공, 1 학생 1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충남학교예술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첫째, 학생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교예술교육 활동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인 1악기 연주를 위한 악기교육지원사업, 인력 재능 기부, 학교 밖 예술 체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과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음악과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교육과정으로 보통교과로는 음악, 미술, 연극을 전문계열로는 예술계열에 속하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영화, 사진 관련 과목들을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 예술교과 전담교사 및 중등 음악, 미술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소외지역 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중점 특성화 학교 지원 확대 및 인적·물적 자원 확보, 지역사회 예술문화체험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교육부(2018)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기본 계획
2. 충청남도교육청(2018) 충남예술교육 기본 계획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 학교예술교육지원 연구 및 연수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충남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변상섭 |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byun806@cacf.or.kr)

⇒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학교 내·외로 구분

I.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00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학교 예술교육 확대(국악)를 위해 16개 자치단체와 국악협회 주관으로 국악강사풀제 운영이 시작

- 2002년 연극(연극협회 주관)
- 2004년 영화(영화교육학회 주관)
- 2005년 무용·애니메이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문화예술 교육지원법(12월) 제정
- 2006 강사풀제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 변경
- 2009년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체계 구축
- 2010년 공예, 사진, 디자인이 추가되면서 8개 분야로 확대

이때부터 국악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광역문화재단)에서 7개 분야 학교예술지원 강사 업무를 추진하다가 예술 강사 노조와 계약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면서 16개 광역재단 중 충남·북과 세종, 울산, 대구를 제외한 11개 광역문화재단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대학산학협력단이나 민간영역인 예술단체 및 기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내 예술교육이 현재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교육부등 문화예술교육주체인 중앙정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원, 광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와 광역문화재단이 발전적 차원에서 계약주체로 인한 갈등관계를 해결해야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다섯 개 재단도 사업수행을 계속 수행할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실태 파악

- 은퇴자, 귀향, 귀촌 인구가 늘면서 문화예술 교육 수요 급증 추세
하지만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혜택을 받는다는 교통, 정보, 시설 등 여건 부족으로 접근성이 미흡한 실정
- 은퇴자 등 고학력자가 예술교육현장에 유입되면서 교육 장르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문화예술교육→감상 →활동(발표) 및 봉사 등 문화예술 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 미흡
- 교육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전문 강사, 교육 및 발표 공간 등도 새롭게 파악해야 할 과제
- 물론 그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서 자료 등이 많이 있으나 조사 샘플(500샘플 안팎)이 적어 도민의 의견과 현장감을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이 많아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의 도농, 연령, 성별, 교육기관, 동호인 수 등 보다 세분화되고 종합적인 문화예술 교육실태조사가 선행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게 수순
- 문재인 정부 들어 문화예술 영역에도 분권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할 과제

· 교육시설 및 강사 인프라 구축

-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교육공간과 강사 인프라 부족
- 교육공간은 문화원과 읍면동 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한 강의실이 대부분. 전문 강사 인프라 구축과 교육시설과 강사, 아마추어 동아리 등간 연계 역할을 할 전문 매개자 등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시·군 도시 재생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정책 프로그램과 연계, 시군마다 1개 이상의 교육공간을 겸한 소극장 설립
- 문화예술 교육과 발표 공간 확보, 도시 재생사업의 한 축인 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망

III. 충남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

- 도와 시·군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 문화원, 지역 대학, 문화예술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구축
- 문화예술 교육의 수요와 공급, 매개 역할이 자율적 시스템으로 운영 되도록 하는 한편 문화 분권화 차원에서 활성화 동력 제공

충남문화예술교육의 현장과 대안

문옥배 |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당진문예의전당 관장
(hermes63@hanmail.net)

I.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문화예술교육

본 토론문은 문화예술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장에 바탕을 두고 현황과 대안에 대해 논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토론자(이하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당진문화재단(당진문예의전당, 당진문화예술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대안적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필자는 앞서 발표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김재경 본부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한계점은 기초지자체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
⇒ 예술기능교육중심, 2010서울아젠다 적용 한계
• 공급자·중앙 주도적 정책의 한계
⇒ 지역 맞춤형사업 부족
• 문화예술교육의 수요파악 미흡 및 질적 관리 부족
⇒ 수요 파악 및 질적 관리 전무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 생태계 자체가 전무
•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지원환경 필요
⇒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무(개별적 역량 강화)
• 전 국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 생활예술활동으로의 연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II. 지역 현장에서 ‘바라는’ 문화예술교육 전략

지역에서 보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략과 과제는 어떻게 가야할까? 이는 발제자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팀장의 전략과 과제에 동의한다. 특히 지역을 토대로 한다는 전제가 그러하다.

전 략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체계 구축
-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 조성 및 주요사업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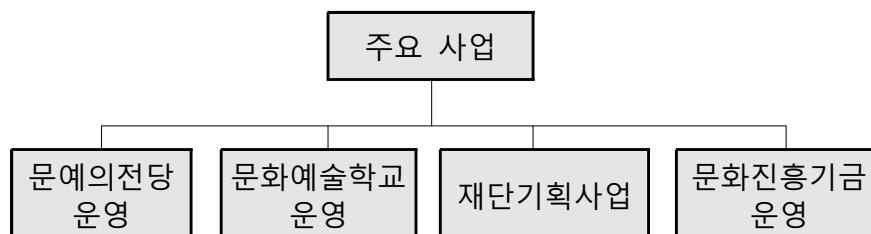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정지은 책임연구원의 연구는 충남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특히 생활예술활동과의 연계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주는 전략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충남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과제로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현장을 반영하여(광역 도와 기초 시군의 관계성) 수립해야 할 정책과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점은 충남 현장의 문제를 잘 이끌어내고 있다.

논의과제

- 충남의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수립
- 충남 지역맞춤형 문화예술교육모델개발
- 충남문화예술교육 운영체계의 거버넌스 구축

Ⅲ.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례

충남지역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운영은 문화재단과 문화원,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가장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문화재단이다. 충남지역의 문화재단은 광역재단인 충남문화재단과 기초재단인 천안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이 있다. 문화재단중 광역재단처럼 국가위임 교육사업이 아닌 지역 중심의 자체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프로그램)과 전용교육시설(공간)을 운영하는 곳은 당진문화재단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당진문화예술학교로만 한정하지않고, 당진문화재단의 4대 주요사업영역(전 사업영역)에 포함시켜 전일적(Holistic approach)인 교육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래의 체계도는 당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기본방향, 추진방향,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연계프로세스를 설명한 것이다.



당진문예의전당

- 대공연장 1001석, 소공연장 300석, 야외공연장
- 별관 전시관(미술관) 2층 규모, 3개 전시실

당진문화예술학교

- 1층 : 무용실, 소강의실(3실), 대강의실(2실),
- 2층 : 음악실(2실), 자율학습실, 탁아실, 사무실
- 3층 : 블랙박스공연장, 미술실(2실), 세미나실, 강의실
소회의실(2실)

※ 40여개의 시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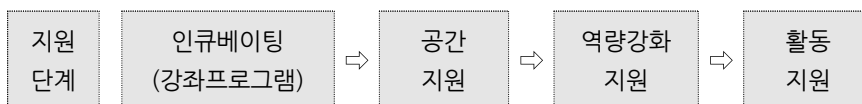
□ 기본방향

- 「2010 서울아젠다」 목표와 전략 지향(특히 목표3)
- 당진문화예술학교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화
- 당진문예의전당의 거점 공간화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추진방향

- 「당진문화예술교육 발전계획」 수립 추진(2015)
- 시민주도의 사업 추진 : 시민추진단, 위원회 등
-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예술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사업 추진
- 생활문화예술활동과의 연계로 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
- 시민사회영역(비문화예술영역)과의 융합사업 추진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생활예술활동의 사업연계프로세스



단계1	▷인큐베이팅 - 당진문화예술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이수후 문화동아리 창단 지원
------------	---

단계2	▷공간지원 -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	------------------------------------

단계3	▷역량강화 지원 - 문화동아리 역량강화사업 - 예술강사아카데미 - 당진아트콜로키움(전문인력대상) - 생활문화활동가 육성사업 - 예술전문인력육성프로그램
------------	---

<p>단계4</p>	<p>▷ 활동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문화진흥기금(생활예술지원) - 문화동아리 활성화사업 - 당진문화동아리주간사업 : 당진생활문화예술제 - 당진예당 시민오케스트라
-------------------	---

<p>단계5</p>	<p>▷ 시민사회영역(비문화예술영역)과의 융합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사업 - 시민문화네트워크사업 - 당진인문학시즌사업 -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	---

IV. 마치면서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고유기획사업이며, 사업의 대 전제는 지역기반과 수용자 중심주의이다.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는 최전선은 기초자치지역이다. 정부의 정책, 광역도의 정책 성공 여부는 기초자치지역 현장의 실천에 달려있다. 즉 지역기반, 지역수용자 중심이 토대(혹은 전제)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지역기반이라는 전제에는 지역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를 포함하는 포괄적 문화예술환경을 의미한다.

기초자치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에 정부의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정부와 광역도가 기초자치지역의 여건과 그에 따른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수립한다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그것일 것이다.

또한 지자체나 산하 기관(문화재단, 문화원, 문예회관)이 문화예술교육을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수행해야 될 사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 고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도는 지자체의 고유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충남지역에 충남연구원 정지은 책임연구원이 제시한 3대 논의과제가 충남도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언론사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성공 사례와 제언

이종원 |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차장(salut@donga.com)

I.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소개

: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예술회관, 언론사 등 관계기관 ‘거버넌스’ 효과적 형성

1. 사업 개요

동아일보는 지난 2007년부터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라는 명칭의 사회 공헌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전국 43개 지역에서 49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 첫 해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은 교육적인 내용의 문화예술 행사를 청소년 관객에게 보여주는 형태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이 행사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으며 8주에서 12주 정도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발표회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행사명 :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 주최 : 동아일보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지방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교육청)
- 주관 :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회관
- 대상 : 전국 중고등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소속, 결손가정, 빈민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일반 학생도 참여함.)

2. 사업 목적

•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고 직접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어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감춰진 재능을 발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여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들이 교육 및 공연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 등 인성을 키우고 자신감을 갖도록 함.

3. 사업 진행

- 교육기간 : 매주 2회 (주중 1회, 주말 1회) 총 8~12주 교육 후 발표공연을 가짐.
- 교육장르 : 오페라, 뮤지컬, 무용, 연극 등
- 교육대상 : 각 지역 중1~고3 학생 20~40명(복지시설 소속,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 우선 모집)
- 2007년부터 43개 지역 총 49회, 약 20,000여 명 청소년 참여(관람 학생 포함)

4. 소요 예산: 곳당 약 3천만 원 내외

II. 충남지역 진행 사례

1. 제 13회 충남 태안문예회관(2008년 9월 30일)

- 주최: 태안군, 태안교육청, 동아일보사
- 프로그램: 우광혁 교수의 '세계 악기 여행', 장선희 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비보이팀 유니버셜크루
- 태안군수, 태안교육장, 동아일보 회장 및 지역 중고생 700여 명 참가

社 告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30일 충남 태안문예회관
세계악기여행 - 발레공연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동아일보사와 한진중공업이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13번째 행사가 30일 충남 태안군 태안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충청남도 태안군과 태안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선 세계 여러 나라의 악기와 음악을 소개하는 우광혁 교수의 렉처 콘서트 '세계악기여행'을 비롯해 장선희 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비보이팀 '유니버셜 크루' 등 교육적이면서 흥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9월 30일(화) 오후 4시 태안문예회관
- 입장료 무료 (단, 사전에 신청한 청소년 및 학부모에 한해 입장할 수 있음)
- 문의 및 태안문예회관 041-670-2258, www.taean.go.kr
- 관람신청 동아일보 문화사업팀 02-2020-1620, www.donga.com

주최: 동아일보 후원: 태안군 · 태안교육청 협찬: 한진중공업

東亞日報

2008년 10월 02일
28면 (인물)



태안서 열린 '문화예술과 놀자' 공연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태안군과 태안교육청이 후원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공연이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태안문예회관에서 열렸다. 한진중공업 협찬으로 마련된 이날 공연엔 이 지역 중고생 7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우광혁 교수의 '세계 악기 여행', 장선희 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B-boy팀 유니버셜 크루의 공연 등이 펼쳐져 박수갈채를 받았다. 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9.9×8.6)cm

2. 제 21회 충남 공주문예회관(2009년 12월 9일)

- 주최: 공주시, 공주교육청, 동아일보사
- 프로그램: 프로그램: 클래식 퍼포먼스 '호호클래식', 아카펠라 '레드소울', 비보이팀 모닝오브소울
- 공주시장, 공주교육장, 동아일보 회장 및 지역 중고생 700여 명 참가

한진중공업과 함께하는 제21회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12월 9일 오후 4시 충남 공주문예회관에서 클래식 피아노스-비보이 등 공연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의 21번째 행사가 12월 9일 충남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문화예술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 행사는 본사와 한진중공업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순회 개최해 청소년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공주시, 공주교육청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클래식 피아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호호클래식'을 비롯해 아카펠라, 비보이 등 교육적이면서도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출연	클래식 피아노스 호호클래식, 아카펠라 레드소울, 비보이팀 모닝오브소울
입장료	무료
문의 및 참가신청	공주문예회관 041-840-2647, acc.gongju.go.kr 동아일보 문화사업팀 02-361-1414, www.donga.com

주최: 공주시, 공주교육청, 동아일보 | 협찬: 한진중공업

東亞日報 2009년 12월 11일 31면 (인물)



9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행사 중 '호호 클래식' 프로그램. 막막한 클래식의 이미지를 탈피해 관객이 클래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인기를 끌었다. 사진 제공 공주교육청

클래식-아카펠라 들으며 공부 스트레스 '썩'

공주시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호호 클래식'은 딱딱한 클래식의 이미지를 탈피해 관객이 클래식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다. 국내 장상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 '레드소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인간의 목소리로 감동적인 선율을 표현했다.

공주=지명훈 기자 mhj@donga.com (12.11.21cm)

3. 제 25회 홍주문화센터(2010년 9월 23일)

- 주최: 홍성군, 홍성교육청, 동아일보사
- 프로그램: 클래식 현악4중주 콰르텟X의 '한 시간에 듣는 서양음악사', 비보이팀 엠비크루
- 홍성군수, 홍성교육장, 동아일보 회장 및 지역 중고생 600여 명 참가

한진중공업과 함께하는 제25회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30일 충남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한 시간에 듣는 서양음악사' 공연, 비보이 공연

동아일보가 한진중공업과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의 25번째 행사가 9월 30일 충남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대도시에서 문화예술 체험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열리는 이 행사는 클래식 현악4중주 콰르텟X의 '한 시간에 듣는 서양음악사'와 엠비크루의 비보이 공연 등 교육적이고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홍성군, 홍성교육청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일시: 9월 30일(목)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 출연: 현악4중주 조음법 콰르텟X, 비보이팀 엠비크루

• 입장료: 무료

• 문의 및 관람신청: 홍주문화회관 041-634-0021, www.hongseong.go.kr
동아일보 문화사업팀 02-361-1414, www.donga.com

주최: 홍성군, 홍성교육청, 동아일보 | 협찬: 한진중공업

東亞日報 2010년 10월 11일 31면 (인물)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충남 홍성시 25번째 공연

30일 충남 홍성군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린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의 25번째 공연에서 조음법 콰르텟X가 연주하고 있다. 홍성지역 청소년 600여 명이 동아일보가 한진중공업의 협찬을 받아 진행한 이번 공연을 관람했다. 뮤지컬 배우 송현정 씨와 사회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 조 씨는 연주 외에 프라젠타이션을 통해 비호, 한일, 베트남 등 음악가들의 음악사를 정리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인가를 끌고 있는 실력파 비보이 댄스팀 '엠비크루'의 춤이 청소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청소년 2만2000여 명이 찾았다. 사진 제공 홍주문화회관

東亞日報 2010년 9월 30일 24면 (충청/충남)

'클래식-비보이' 홍성지역 청소년과 만나다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3일 무료 공연

동아일보가 한진중공업 후援으로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의 25번째 행사가 30일 오후 3시 충남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홍성군과 홍성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도시에서 비해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마련됐다. 클래식 현악4중주 조음법 콰르텟X의 '한 시간에 듣는 서양음악사'와 엠비크루의 '비보이 공연' 등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콰르텟X의 리더(바이올리니스트)이자 해설과 연주가 맡게하는 '파워클래식'으로 잘 알려진 조음법은 프라젠타이션과 콰르텟X의 멋진 콘서트를 통해 바흐의 시대의 바흐의 행렬, 고전과 시대의 하이든과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과 슈베르트, 멘델스존 차이콥스키까지 거장들의 현대음악사를 한 시간 동안에 정리해 준다.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인가를 끌고 있는 엠비크루는 에어트레, 프리즈, 쿨워크 등 고도의 테크닉과 완성도 높은 비보이 춤을 선보인다. 무료, 홍주문화회관 041-634-0021, 홍주문화회관 041-634-0021로 구경해 있다.

지명훈 기자 mhj@donga.com (10.9.11.21cm)

4. 제 31회 당진문예의전당(2011년 12월 19일)

- 주최: 당진군, 동아일보사
- 프로그램: 현대무용 '도깨비춤', '웃음', '허허하하', '앵무새춤'
- 당진군수, 동아일보 대표이사 및 지역 중고교생 20여 명(직접공연), 330여 명 관객으로 참가

한진중공업과 함께하는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19일 충남 당진문의예의전당, 23일 경기 연천수레울아트홀

동아일보사가 한진중공업과 함께 마련하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의 31번째 행사가 19일과 23일 충남 당진문의예의전당과 경기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각각 열립니다.

- 일시 장소: 12월 19일(월) 오후 3시 충남 당진문의예의전당 23일(금) 오후 3시 경기 연천수레울아트홀
- 출연: 당진 및 연천지역 청소년
- 프로그램: 당진-현대무용 '도깨비춤', '웃음', '허허허', '영무새춤' 연천-연극 '아름다운 별리'
- 관람 신청 및 문의: 동아일보 문화사업팀 02-361-1414, www.donga.com 당진문의예의전당 041-350-4772, www.danginart.go.kr 연천수레울아트홀 031-834-3770, www.sureul.com

주최: 당진군 연천군 등 아 일 보
주관: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나우무용단, 극단비매물 협진: 한진중공업

알립니다

東亞日報

2011년 12월 21일 화요일 (인물)

동아일보가 2007년부터 한진중공업의 협찬을 받아 전국을 돌며 열고 있는 청소년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의 31번째 행사가 19일 오후 충남 당진군 당진문의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지명훈 기자 mhjoo@donga.com

“도깨비춤...영무새춤...현대무용 재밌어요”

본보 '문화예술과 놀자' 당진서 31번째 행사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의 31번째 행사가 19일 오후 3시 충남 당진군 당진문의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일보가 2007년 한진중공업의 협찬을 받아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 올해부터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수준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체험형으로 바뀌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당진지역 중고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배운 현대무용을 공연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도, 일요일마다 사단법인 NOW 무용단(예술감독 손인영) 소속 전문 무용수들로부터 무용 기초에서부터 창의적인 표현법, 작품 만들기 등을 배웠다. 박수진 양(17·당진고 2년)은 “이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게 처음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전문가인 선생님들로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아홉살 당진군수와 최병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을 비롯해 지역 고교생 330여 명이 관람했다. 당진=지명훈 기자 mhjoo@donga.com (10.4-15.5cm)

III. 충남 문화예술교육 시사점

1. 지역 사회의 유기적 협조 ⇨ 거버넌스 형성

-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네트워크 융합 결정체
- 교육(지원)청, 학교: 학생 모집, 선발
문화회관: 연습 및 공연 장소 제공, 진행
동아일보사: 교육 공급, 학생 관리, 홍보 및 결과 보고

2. 양질의 문화예술강사 확보

- 강사의 자질은 소통을 통한 교감과 동기부여 등 ‘관계형성’

3. 사업성과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대대적 홍보(결과 발표)

- 교육효과의 대대적인 직,간접적 알림
-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건전한 점검과 확인
- 지자체장, 교육장 등 의사결정자의 현장 교육효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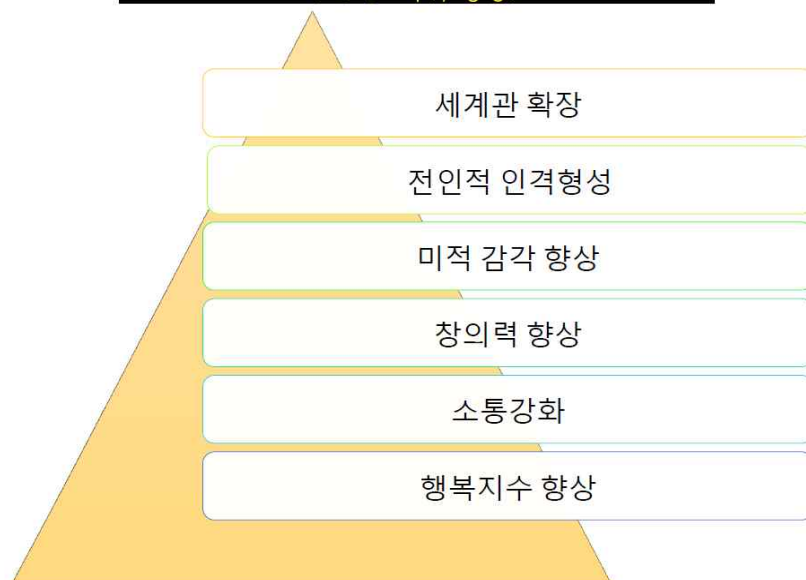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통합문화예술교육

2018. 05. 02

동덕여자대학교 김춘경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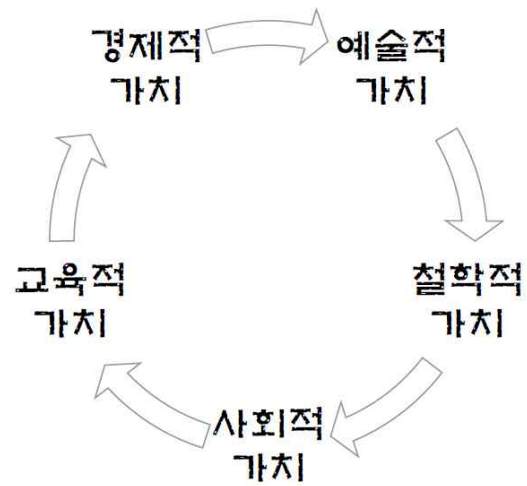


통합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소프트 파워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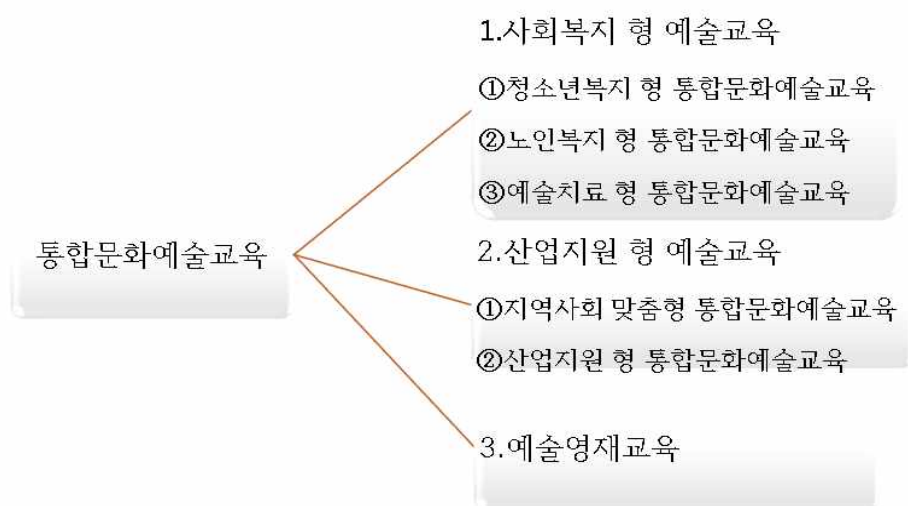


개인 및 사회의 소프트 파워 향상!

예술의 가치 순환



통합문화예술교육 방향





1.사회복지 형 통합문화예술교육

①청소년복지 형 통합문화예술교육

- 體·仁·智 교육을 통한 Change Up 예술교육



- 동아일보 청소년문화융합공연 '나도 뮤지컬 스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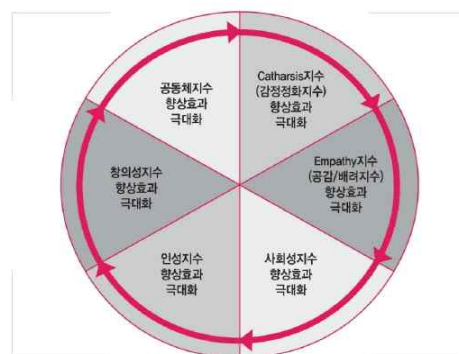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학생지원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통합문화예술교육(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1.사회복지 형 통합문화예술교육



통합문화예술교육의 효과

②노인복지 형 통합문화예술교육

- 치매예방 및 우울증 극복을 통한 노인의 사회성 향상

③예술치료 형 통합문화예술교육

- 정서 치료를 위한 통합문화예술교육



1.사회복지 형 통합문화예술교육



다문화 학생지원 통합문화예술교육의 효과



2.산업지원 형 통합문화예술교육

감동을 창조하는 예술의 노하우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

예술-관객감동 추구

☐

기업-고객감동 추구

☐

통합문화예술교육-감동창조교육



2. 산업지원 형 통합문화예술교육

①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문화예술교육

- 지역사회 문화 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② 산업지원 형 통합문화예술교육

- 산업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예술교육



산업지원 형 예술교육



미래사회 기술이 요구하는 가치
⇒ 예술이 추구하는 가치와 유사



기업이 창의감성교육 전공자를 선발하는 이유
⇒ 감성기반, 인간중심 산업 중시

제품생산 역량강화부문 적용 사례: 사각모 사과



연합뉴스
대학 합격 기원 '네모난 사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여일 앞둔 28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과수원에서 '네모난 사과' 수확이 한창이다. 사각 모양인 네모난 사과에는 대학의 상징인 사각모와 '합격'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